**내 아내가 충남 금산의 집단 모임에 갔다 온다고 합니다.**

**" 뭐?" "또 가" 불만스러웠지만 다녀오라 했습니다.**

**다녀오고 나서 얼마 있다가 저에게도 갔다 왔으면 좋겠다고 권합니다.**

**"나는 안가도 돼. 집단 모임이 다 그런 거겠지. 난 괜찮아. "**

**그 후 또 권합니다.**

**"한 번 다녀와 봐."**

**"뭐 하는 곳인데?"**

**"그냥. 다녀와. 하비람이라는 곳이야."**

**전 합일암이라 들었습니다. '무슨 불교 모임인가 보구나.' '이상한 사이비 집단인가........'**

**아내의 일을 도와 주시는 분에게 물었습니다.**

**"합일암이 뭐예요?"**

**"하비람이예요 ㅎㅎㅎ- 하느님의 비밀을 간진한 사람요...."**

**"이상한 이름이네요......"**

**그리고 저는 금산으로 출발을 했습니다.**

**저희는 올해로 34년간 부부의 연을 맺고 있습니다. 그 동안 다투고, 화내고, 삐지고, 상처주고, 화해하고, 웃으면서 살아왔습니다.**

**저는 60이 넘게 살면서 '남자는 울지도 않고, 할말도 다 하지 말고, 참고 참고 참으며 사는 것이 미덕이다'라는 나름대로의 기준을 제 가슴에 새기고 살아 왔습니다.**

**알아 차리기 과정 중에서 화나는 일을 찾는 시간.**

**곰곰히 생각을 했습니다. '나에게 맺힌 화는 무엇일까?' 그때 저의 가슴에 맺혔던 사실이 생각 났습니다.**

**2년 전 직장을 그만두고 집에 있는데 아내가 저에게 한 말**

**"당신은 참 무책임한 사람이야."**

**정말 서운했습니다. 그 동안 가정에 내 나름대로 노력과 희생을 했다 생각했는데.... 왜 저 말을 할까. 힘이 쭉 빠졌습니다. 눈물이 맺혔습니다. 그러나 아무 말 하지 않고 비시시 웃었습니다. 자리를 피했습니다. 그래 참자 참자 참자. 그러나 가끔씩 내 가슴에서 머리에서 생각이 났습니다.**

**그랬습니다.**

**"당신은 참 무책임한 사람이야." 이 말은 저에게 최대의 아픔으로 자리잡고 있었습니다. 그 후에도 그 때을 생각하면 계속 가슴이 먹먹해 졌습니다.**

**산파님은 계속 물으십니다.**

**"그 일이 화를 낼 일입니까?"**

**"녜 화 낼 일입니다."**

**저는 이상했습니다. '아니. 이것이 화 낼 일이 아니면 무엇인가. 화 안낼 일인가...... 이상한 사람들이네'**

**"화 낼 일이라고 어디에 쓰여 있습니까?"**

**"제가 한 경험, 그리고 제가 가진 기준에 있습니다"**

**"그 것은 참 입니까?**

**정말 혼란스러웠습니다. 짜증이 났습니다. 나무를 부여잡고, 나무 껍질에서 상처를 느끼며, 머리를 부딪쳐가며 물어봤습니다. 답은? 없었습니다.**

**그러나 계속되는 물음 가운데서 *'아 내가 세운 기준에 의한, 나의 생각에 의한, 나의 느낌에 의해서 화를 냈구나........*' 눈물이 났습니다. 지금 이 글을 쓰면서도 눈물이 납니다.**

**다음날 아침햇살님의 강의 일화 중**

***아버지에게 무척이나 두들겨 맞은 아들이 성인이 된 후 저수지 위에서 아버지에게 '아버지, 왜 저 어렸을 때 그렇게 때렸어요?' 아버지 담배를 한 대 피우시며 "난 더 얻어 맞았다"***

**저의 가슴을 커다란 망치가 쳤습니다. 제 머리를 주먹이 내리 쳤습니다. 멍~ 했습니다.**

**그렇습니다. 제 아내는 저에게 더 얻어 맞았습니다.**

**정말 삶은 신비 입니다.**

**함부로 살아갈 수 없는 인생입니다.**

**모든 사람을 모든 사물을 새로이 보고 느끼며 살겠습니다.**

**참 소중한 시간이었고 시간입니다.**